

청와대 교육감 간담회서 극찬 받은 '전남형 전원학교'

농산어촌 특성 살려 학생 늘고 성적 올라

도교육청 작년 테마별 4개교 지정 운영

교과부, 전국 확대… 110개교 선정 지원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초청 간담회에서 전남형 전원학교인 '행복한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이 화제로 올랐다. 김광현 전남도 교육감은 이날 '행복한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의 배경과 성과 등을 상세히 설명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남도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도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원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나게 됐다.

이와관련,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최근 광주와 전남을 방문해 '김광현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전원학교 정책은 낙후된 농촌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면서 "전남의 선진화된 교육 시책을 전국으로 확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교육청은 시범적으로 추진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된 '전남형 전원학교'를 살펴봤다.

◇농산어촌 점점 살리기=전남도 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농산어촌 학교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시작했다.

대상 학교는 담당 고서초, 학운 도곡초, 장성 진원초, 담양 한재중 등 4개교,

이들 학교는 아토피 치료와 특기적성교육, 전원학교 등 각각의 테마를 통해 특성화 했고, 인근 도시지역 학생과 주민을 유입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덕분에 이들 4개교에는 67명의 학생이 있었고, 사교육을 받는 학생도 20여명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올해 화순 도곡 중과 순천 벌랑중 등 2개교를 추가로 지정했다.

◇도시학교와 차별화=담양 한재중은 '찾아오는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불 밟히

광주여자대학교 광주지역 대학 최초의 천연 잔디운동장 개장을 계기로 학내 모든 시설물과 운영을 저탄소 위주 에너지 절감을 추구하는 '그린 캠퍼스' 선포식을 한다.

광주여대는 26일 오전 11시 교내 대운동장에 그린 운동장에서 운동장 준공 행사와 '그린 캠퍼스' 선포식 행사를 갖는다.

천연 잔디운동장은 우레탄 트랙과 야간 활동을 위한 태양광 조명시설 등을 갖춰 학생들의 체육수업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광주여대는 '그린 캠퍼스' 선포식을 계기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제고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광주여대는 우선 진입로 가로수 교체와 교내 곳곳에 대한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해 캠퍼스를 푸르게 했으며, 태양광 발전

또 모든 전원학교에는 생태체험 교실 등 자연 친화적인 실내외 환경이 조성돼 있고, 텃밭·농장 가꾸기 등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 여건도 기본으로 갖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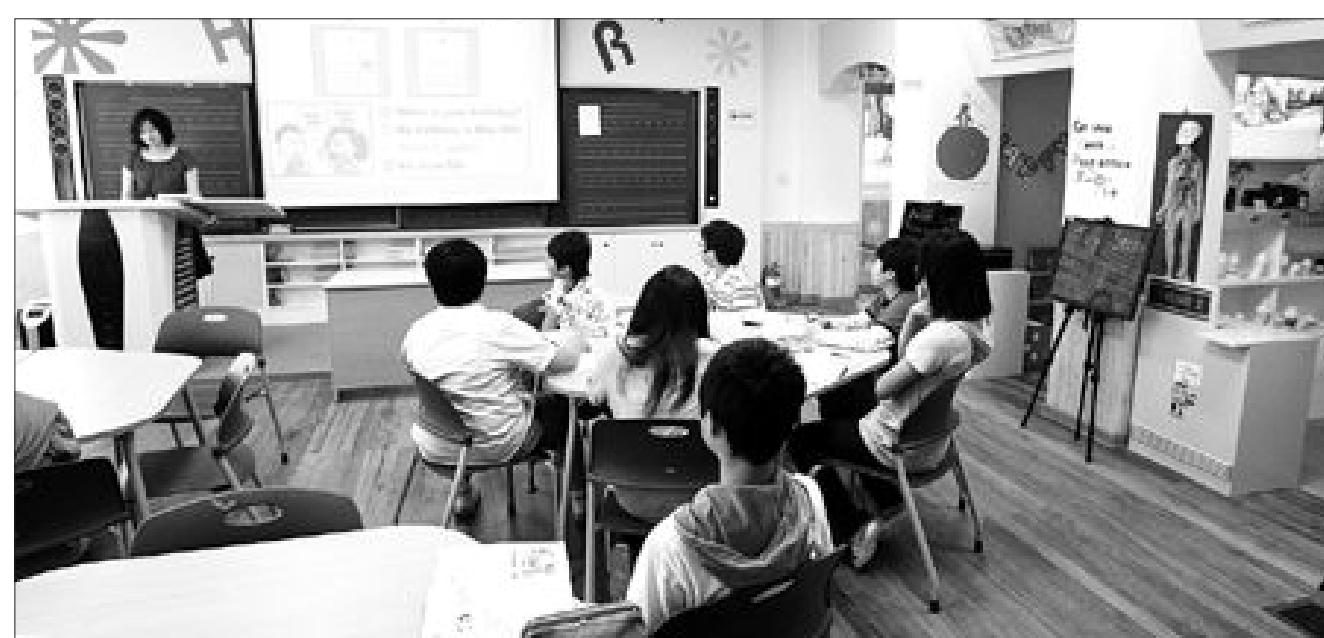
이 같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층의 노력으로 학생 유입은 물론 성적 향상 등 1석 2조의 교육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전남형 전원학교 전국 확대=교육과학기술부는 전남형 전원학교를 기본 모델로, 전국 면 단위에 있는 학생 규모 61~120명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1천 83곳 가운데

110곳을 선정해 '전원학교'로 육성키로 했다. 이 중 전남에는 21개교 정도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며, 학교별로 3억~20억 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올 7월 초 학교를 선정해 3년간 총 1천 393여명이 지원된다. 전원학교는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 시설과 첨단 e-러닝 교실 ▲수준별 영어학습과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과정 ▲교장·교사 공모제를 통한 우수 교원 ▲ 지역 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김광현 전남도 교육감은 "'농산어촌 전원학교'는 도시학교와의 교육 격차를 없애고,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전남 교육을 업그레이드 하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박준기자 lucky@kwangju.co.kr



25일 담양 한재중학교 학생들이 영어전용 교실에서 실력 맞춤형 영어 프로그램인 '뜻밖뜻밖 영어' 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으로 학교로 선정된 한재중은 90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전남도 교육청 제공>

천연 잔디운동장 개장·태양광 조명 시설…

광주여대 '그린 캠퍼스' 선포식

시스템 설치 및 고효율 조명기 교체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도 병행했다.

또한 인체감지형 절전시스템을 도입해 빈 강의실과 실습실 자동 소등 및 냉난방 기동률을 중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정문 담장을 허물어 나무

로 대체했으며, 현재는 교내 가로등을 LED형으로 교체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의 그린 운동 동참을 위해 그린캠퍼스 신문포를 작성했다. 커리큘럼에도 환경관련 과목을 확장하고, 교수들의 환경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를 늘릴 방침이다.

오장원 광주여대 총장은 "교직원과 학생 등 모든 대학 구성원이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캠퍼스를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기자 chae@kwangju.co.kr

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제고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광주여대는 우선 진입로 가로수 교체와 교내 곳곳에 대한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해 캠퍼스를 푸르게 했으며,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에너지 절약도 병행했다.

또한 인체감지형 절전시스템을 도입해 빈 강의실과 실습실 자동 소등 및 냉난방 기동률을 중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정문 담장을 허물어 나무

로 대체했으며, 현재는 교내 가로등을 LED형으로 교체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의 그린 운동 동참을 위해 그린캠퍼스 신문포를 작성했다. 커리큘럼에도 환경관련 과목을 확장하고, 교수들의 환경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를 늘릴 방침이다.

오장원 광주여대 총장은 "교직원과 학생 등 모든 대학 구성원이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캠퍼스를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기자 chae@kwangju.co.kr

캠퍼스 소식

동신대 '문화기술연구소 육성 지원사업'
 동신대학교 문화기술연구소 육성 사업단(총괄책임자 강임철 교수)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년도 문화기술(CT) 연구소 육성 사업 가상현실·가상세계 분야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오는 2012년까지 국비 6억5천만원을 비롯해 3년 동안 총 9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가상 수중 환경에서의 체감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동신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운동처방학과를 비롯한 관련학과와 디지털콘텐츠협동 연구센터 등 연구센터, 해양환경 전문가, 산업체를 망라해 92명의 연구원으로 연구팀을 구성했다.

사업단은 수중 산업과 연관된 교육·훈련 등 기능성 콘텐츠 산업 발전은 물론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체감형 콘텐츠 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대 2학기부터 국제협력 강좌 개설

조선대학교 2학기부터 국제 협력 강좌 개설

조선대학교가 2학기부터 국제개발협력 강좌를 개설, 최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비정부기구(NGO)가 벌이는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전호증 조선대 총장은 최근 정부의 무상 원조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박대원 이사장과 2009 국제개발

협력 인증강화사업 교과목 개설지원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2학기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인지강화를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대학생의 교양강화와 국제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 리더십 개발' (책임교수 정형식·경영학부)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한다.

광주대 건축학과 광주·전남 미술대전 수상

광주대 건축학과 학생들 이전 'KIA MOTORS MUSEUM'과 간소연·김명준·오은규 학생의 작품 'Public Library'가 각각 특선을 차지하는 등 모두 8개 작품이 입상했다.

25일 광주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45회 전라남도 미술대전에서 건축학과 박자영·이상현·조찬민 학생의 작품 '물위를 걷다'가 건축부문 수상했다. 또 나영재·

윤계영·문성현 학생의 'KIA MOTORS MUSEUM'과 간소연·김명준·오은규 학생의 작품 'Public Library'가 각각 특선을 차지하는 등 모두 8개 작품이 입상했다.

이에 앞서 열린 제22회 광주시 미술대전에서도 건축부문에 10개 작품을 출품해 대회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비롯한 7개의 상을 수상했다. 또 나영재·

서강정보대 교사·학생 경진대회·공동작품전

서강정보대 교사·학생 경진대회·공동작품전

서강정보대는 26일 오전 11시 교내 문화관에서 전문제교 고교 교장·실과부장, 교사 및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서강정보대학 경진대회 및 공동작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 및 공동작품전은 전문제교와 대학이 연계교육 등을 통해 협력함으로써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전문제 교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유망 아이템

러드워 교수(지리교육학과), 미국 일리노이 대학 네시 스캐널 교수(경제학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 스티브 킹 교수(건축학과) 등 4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경진대회는 자동차와 튜닝 성능시험 및 카오디오 제작을 포함해서 7개부문에

서 진행되고, 공동작품전은 디자인학부 산업 귀금속 인테리어디자인을 포함해 5개부문에 이뤄진다.

전남대 해외 유명 교수 초빙 '국제여름학교'

전남대 해외 유명 교수 초빙 '국제여름학교'

전남대가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 호주 등 현지 대학교 교수들을 초빙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대는 지난 18일부터 4주간의 과정으로 '국제여름학교'를 개최, 미국 미주리대학 데이터드 웨버 교수(정치외교학과), 게일

리더워 교수(지리교육학과), 미국 일리노이 대학 네시 스캐널 교수(경제학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 스티브 킹 교수(건축학과) 등 4명을 초빙했다.

이들은 금융경제학, 친환경통합설계 등 자신의 전공분야를 교과목으로 개설했다.

특히 광주여대는 '그린 캠퍼스' 선포식을 계기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광주여대는 우선 진입로 가로수 교체와 교내 곳곳에 대한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해 캠퍼스를 푸르게 했으며,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에너지 절약도 병행했다.

또한 인체감지형 절전시스템을 도입해 빈 강의실과 실습실 자동 소등 및 냉난방 기동률을 중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정문 담장을 허물어 나무

로 대체했으며, 현재는 교내 가로등을 LED형으로 교체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의 그린 운동 동참을 위해 그린캠퍼스 신문포를 작성했다. 커리큘럼에도 환경관련 과목을 확장하고, 교수들의 환경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를 늘릴 방침이다.

오장원 광주여대 총장은 "교직원과 학생 등 모든 대학 구성원이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캠퍼스를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기자 chae@kwangju.co.kr

특히 광주여대는 '그린 캠퍼스' 선포식을 계기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광주여대는 우선 진입로 가로수 교체와 교내 곳곳에 대한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해 캠퍼스를 푸르게 했으며,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에너지 절약도 병행했다.

또한 인체감지형 절전시스템을 도입해 빈 강의실과 실습실 자동 소등 및 냉난방 기동률을 중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정문 담장을 허물어 나무

로 대체했으며, 현재는 교내 가로등을 LED형으로 교체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의 그린 운동 동참을 위해 그린캠퍼스 신문포를

작성했다. 커리큘럼에도 환경관련 과목을 확장하고, 교수들의 환경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를 늘릴 방침이다.

오장원 광주여대 총장은 "교직원과 학생 등 모든 대학 구성원이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캠퍼스를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기자 chae@kwangju.co.kr